

# 韓國의 建築儀禮와 賦役人夫의 悲話

崔 常 壽 - 民俗學者 · 韓國民俗學研究所長

## 1. 建築儀禮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집을 지을 때에 民俗的인 建築儀禮가 있었다.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먼저 집터를 잡는다. 이런 때는 좋은 땅(吉地)을 얻어 人生의 幸福을 얻고자 하는 地理風水說에 의하여 터를 잡는 것이다. 터를 잡은 뒤에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터를 닦는데, 이 때는 「지경다지는 노래」를 부르며 땅을 단단히 다진다. 그런 다음 柱礎(주춧돌)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上樑을 올린 후, 웃짐을 하고 入住할 때까지 행하는 그때 그때의 呪術的·宗教的인 行事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未開·文明한 社會를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서 널리 행하여져 내려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둥을 세우면 「上樑式」이란 것을 하는데, 上樑이란 집을 지을 때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베푸는 儀式을 上樑式이라고 한다. 마룻대는 建物の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 마룻대를 올리면 우선 建物は 均衡을 잡게 되고 집을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이 이 마룻대에 의하여 評價된다. 그러므로 木材도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는데, 이 上樑式은 엄숙하게 행하는 것이다.

上樑式을 할 무렵에는 마룻대에다 붓으로 上樑文을 쓰는데, 머리쪽에는 「龍」字를 쓰고, 밑에는 「龜」字를 쓰며, 「某年 某月 某日 立柱上樑 應天上之五光 備地上之五福」이라고 쓴다. 上樑文의 意圖는 居住할 사람의 萬福을 비는데 있는 것이다.

이 上樑式을 함에는 먼저 좋은날(吉日)을 가려서 時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祭物은 술·떡·乾明太와 白紙를 사용한다. 마룻대를 올리기 전에 役事에 참여한 木手와 土役장이 모두 모여 서고, 都木手が 주장이 되어 술잔에 술을 따루어 祭床에 올리고 절을 한다. 그런 다음에 木手に 의하여 마룻대는 올려지며, 이때는 廣木으로 끈을 하고, 양쪽에서 잡아 올린다. 이 때 建物 주인은 돈

이나 술을 많이 내어 놓으며, 마룻대에는 白紙로 끈을 꼬아 明太와 떡을 달아 매는데, 이것은 木手나 土役장이 먹는다.

이때는 役事에 참여한 여러 사람이 술을 나누는데, 上樑式하는 날 집主人은 役事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工事일에서 쉬게 하고 잘 먹이어서 놀리며, 부근 사람들에게까지도 후하게 대접하여 술과 떡으로 잔치를 베푼다.

그리하여 집이 完成되던 入住를 하게 되는데, 入住 직전이나 직후(事情에 따라서)에는 집안의 幸福을 빌기 위하여 「地神밧기」를 한다. 그런데 이 「地神밧기」는 地方에 따라서 터를 닦은 뒤에 하기도 한다.

地神밧기란 地神, 즉 惡鬼를 鎮壓하여 그 家庭의 無事함과 幸福을 빌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歲時風俗(年中行事)으로서는 해마다 음력 正月 初사흘부터 대보름날까지 사이에 행한다.

先頭에는 「地神밧기」라고 쓴 旗를 앞세우고, 그 뒤에는 農樂隊가 樂器를 쳐 올리고, 또 그 뒤에는 假裝을 한 行列이 따르는데, 그 假裝·行列 중에는 土大夫 여럿과 砲手が 중요한 구실을 한다. 土大夫는 커다란 冠을 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마치 큰 儀式 때와 같이 점잖고 느릿느릿하게 걸으며 맨 첫머리에 서고, 그 뒤에는 당태기에 죽은 평을 넣고 나무로 만든 銃을 둘러맨 砲手와 여러가지 모양의 탈(假面)을 쓴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먼저 一行이 집 大門 앞에서 「主人 主人 門 여소(오)」하고 樂器를 쳐 올리면, 主人이 나와 大門을 열고 一行을 맞아 들인다. 그러면 一行은 그집 마당에서 「마당놀이」를 한바탕 하고, 이어 大廳 앞에서 「大廳 地神밧기」를, 다음에는 큰(안)방 앞에서 「큰방 成造밧기」를, 그 다음에는 각 방 앞에서 「各방 치장밧기」를, 부엌 앞에서는 「부엌(조왕) 地神밧기」를, 우물 앞에서는 「우물(샘) 地神밧기」를, 장독 앞에서는 「장독 地神밧기」를, 곡간 앞에서는 「곡간 地神밧기」를, 뒷간(변소) 앞에서는 「뒷간 地神밧기」를, 大門

안쪽에서는 「大門 地神밧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酒神밧기」를 한다. 이 酒神밧기를 마치면 음식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地神을 밧을 때에는 반드시 『종고 좋은 地神아, 雜鬼雜神은 물 알(아래)로, 千幸萬福은 이 집으로』라고 소리를 하면서 그 집의 마당·부엌 또는 곡간에서 밧고 걸으며 춤을 춘다. 이 때에 부르는 呪詞 일부를 들어보면 이렇하다.

“어 혈사 地神아, 地神 地神 울리자.

이 집 짓던 大木은 어느 大木이 지었노? 各姓바지 중에서 그중에 한 大木이 지었지. 江南에서 나온 제비 술씨 한 되 물어다가 朝鮮 天地 훔었더니 한 長木이 되었구나. 앞 집에 짐(金)大木아, 뒷 집에 朴大木아, 설흔 세가지 연장 망태 서울 앞산 둘레메고 經南山(남산) 서울 뒷산 三角山, 全羅道 智異山 나무 한개 斫伐하니 까막까치 집을 지야(어) 그 나무 不淨하다. 또 한개를 斫伐하니 날새 들새 집을 지야(어) 그 나무도 不淨하다. 黃海道 九月山서 나무 한개 斫伐하여 굵은 나무 굵다듬고, 자진 나무 잣다듬아(어) 이 집을 지었고나. 사모에 단 風磬아, 風磬소리 요란하다. 이 집 짓던 3년만에 아들이 나면 孝子가 나고, 딸이 나면 烈女가 나소(오). 雜鬼雜神은 물 알(아래)로, 萬福은 이 집으로. (東萊地方口傳)”

이상은 東萊地方에서 행하여질 때에 부르는 것의 일부분을 들어 보았거니와, 이 외에도 각 地方에는 이러한 呪詞가 허다함을 보니, 後日의 研究家를 위하여 나의 調査한 바의 몇몇 地方의 것 일부분을 적어보기로 한다.

金泉地方에서는 집主人이 大門을 열고 地神밧기 一行을 맞이하면, 「主人 主人 門 여소 나그네(或은 「地神밧기」) 손님 들어 가오」라 부른다. 그리고 나서 마당으로 들어가 樂器를 치면서 땅을 발로 굴리는데, 마루에서는 「어허로 地神아, 이 집을 지을 때에 어느 大木이 지었노? 洞里李大木이

갖은 연장을 가지고 지공산에 올라가서 설흔세명 役軍들이 손도끼 둘러매고 永平 加平을 들어가서 지공산에 올라 小木 뱀(베)고, 대상에 올라 가서 大木 뱀(베)어 굵은나무 굵다듬고, 자진나무 잣다듬어 龍虎머리 터를 닦고, 鶴의 머리 집을 지어, 네 귀에 風響 달고, 東南風이 건듯 부니 風響소리 요란하다. 어허로 地神아』라고 부르고, 부엌에서는 『나무부왕 조왕神, 백우가도 조왕神, 금통관신 조왕神, 여경기란 조왕神, 어허로 地神아』라고 부르며, 뒷간에서는 『左靑龍 右白虎, 右靑龍 左白虎, 靑龍黃龍을 누리세, 黃龍靑龍을 누리세. 雜鬼雜神은 몰알(아래)로, 어허로 地神아』라고 부른다. 그리고 곡간에서는 『온갖 千石을 부르세. 콩도 千石, 팥도 千石, 양태 千石 부르세. 온갖 도적을 막으세. 밭 큰 도적을 막으세. 작은 도적도 막으세. 어허로 地神아』라고 부르면서 地神밧기를 마친다.

大邱地方에서는 우물 앞에서 『이 샘물도 좋소. 저 샘물도 좋소. 酒泉길은 샘물을 벌떡벌떡 자시오. 에헤라 地神아』라고 부르는데, 그 하는 것을 보면, 『이 샘물도 좋소』하고 一節을 부르면, 一行이 발로 땅을 굴리며 꿩과리 樂器를 치고, 各節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

또 靑松地方에서 하는 것 하나를 더 들어보면, 『地神 地神 地神아, 어루하세나 地神아, 이 집 지은 大木아, 쪼막(조그마한)도끼 둘러매고 뒷동산에 올라가 落落長松 술 뱀어 굵은나무재 채하고, 실렁실렁 톱질하야(여), 사모에 톱질하야 草家三間 집을 지야, 정지(부엌) 구석도 네 구석, 방 구석도 네 구석, 四四十六 열여섯 구석, 이 집 지은 3년만에 아들이 나거든 孝子が 나고, 딸이 나거든 烈女가 나소. 어루하세나 地神아』 한다.

대체로 이 呪詞의 내용을 보면, 精誠을 다하여 大木이 집을 지었으며 집안의 惡鬼神을 발로 밟아서 鎮壓하여 幸福은 이 집으로 와달라는 것과, 아들이 나면 孝子が 나고, 딸이 나면 烈女가 나라는 것이니 孝子와 烈女를 강조한 것은 李朝時代에 있어서 儒敎를 國是를 삼았던 데서 기인된 孝子·烈女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 2. 賦役人夫의 悲話

옛날 王政下에 있어서 國民의 매다

수인 農·工·商·漁民 등 民族大衆에게 있어서는 賦役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國家機關에서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賦課하는 勞役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보수가 없다. 이 賦役은 國民들간에 怨聲이 이만저만 아니었으나, 絶對君主政治 制度下에서는 어찌는 수가 없어 이들은 묵묵히 그저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고려 때의 이야기로서, 지난날 우리나라 土木建築에 있어서 가난한 賦役人夫의 슬픈 이야기 하나를 적어보기로 한다.

서기 '1167년 고려 때의 일이었다. 毅宗이 王位에 오른지 21년 되는 해에 開城 玄化寺 근처 淸寧齋 남쪽 기슭에 丁字閣 하나를 지어 이름을 衆美亭이라 하고, 이 亭子 앞으로 흘러가는 산골물을 흙과 돌로써 貯水池를 쌓아 그 貯水池 가 위에는 몇집으로 이은 亭子를 지어, 그 앞뒤 갈대밭 속에 오리와 기러기가 섞여 놀게 하여 自然으로 된 경치나 다름없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 물 위에 조그마한 배를 흘러 띄우고는 童子로 하여금 고기잡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이를 보고 흥겨워 놀면서 즐기었다. 왕은 이렇게 亭子를 지어서 왕 自身으로는 재미있는 나날을 보낼 수 있었겠으나, 이 亭子를 짓는 동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눈물겨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 亭子를 지을 때에 賦役하는 백성들은 모두 자기의 양식으로 밥을 지어 먹었으며, 품삯이라고는 없는 것이므로 날품팔이로 生計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정상이 말이 아니었다. 그 중에 한 賦役군은 워낙 집이 가난하여 밥때가 되어도 밥을 지을 양식이 없어, 밥때가 되면 남이 안보는 구석진 곳으로 피하여 가버리고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 두번이지, 배고픈 염치를 참기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기를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賦役군들도 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어, 그 뒤로는 밥때가 되면 各者가 한술 밥을 서로 떠내고 모아서 그 賦役군에게 한 그릇 밥을 만들어 주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賦役군은 다행히도 끼니를 굶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밥과 찬을 많이 장만하여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권하면서 『그동안 신세진 친

한 분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것이 좋겠어요』 하고 말한다. 그 賦役군은 자기가 벌지 않으면 도저히 그날 그날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해온데 대하여 그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고는 성을 내면서 아내더러 『내가 벌지 않으면 끼니가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할 수 있단 말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딴 남자와 私通이라도 하여 이러한 것을 마련한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한다.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너무나 의심하는 말을 하므로 정색을 하고는 『여보시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는데, 어느 누구와 사통을 하겠으며, 또 성질이 웅졸한데,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칠 것입니까. 다만 내 머리를 잘라 「다리」(假髮)를 만들어 팔아서 그것으로 밥을 지어 온 것 뿐입니다.』 하고는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고 남편에게 자기의 머리를 보였다.

그 賦役군은 자기 아내의 머리 잘린 모습을 보는 순간, 부끄럽고도 슬픔이 치밀어 올라 목이 메어 밥을 잘 먹지 못하였다.

그 賦役군의 아내는 부끄러움과 아울러 슬퍼하는 남편을 보고 『자른 내 머리를 당신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너무도 나를 의심하기에 저도 할 수 없이 그 증거로 보였던 것 뿐입니다. 이 점을 널리 용서하여 주셔요』 하고는 벗었던 수건을 다시 썼다. 그 賦役군은 슬픔이 치솟아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아내는 남편 앞에 다가 앉으면서 『머리야 자라면 그만 아닙니까. 시장할텐데 어서 잡수셔요.』 하고 위로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였다.

이 이야기는 「고려사(高麗史)」 毅宗王 21年條에 보이거니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인가. 韓國의 옛날 假髮인 이 「다리」에는 土役人夫의 이러한 슬픈 이야기가 얹혀 있음을 본다.

註: 「다리」는 옛말로는 「달의」라 하였고 方言으로는 「다래」·「달래」·「다루」·「달비」·「달의」가 있으며, 漢字로는 月伊·月子라고 한다. 그리고 이 다리는 꼭지를 뺀 채로 만드는데, 이 꼭지를 「다리꼭지」라고 한다.